

본문상호성: 번역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필립 타우너*

양재훈 번역**

이 연구의 목적은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이라고 알려진 문학적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을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선 개념의 배경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에(A),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번역의 전략에 있어서 의도나 목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B). 여기에서 나는 세속적인 문서들과 성스러운 문서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 이후에, 신약성서에서 “본문상호성이 작용하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의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C). 이러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나는 몇 가지 잘못된 번역 전략들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번역 접근 방식들을 낮설게 하는 것과 익숙하게 하는 것이 서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대조시켜서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본문상호성이라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질문들은 번역에 대한 것이고 또한 번역이 본문상호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등이다. 나는 번역에 있어서 본문상호성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D).

1. 본문상호성에 대하여

문학적 현상으로서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려면 아마도 적어도 책 한 권 분량은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이 글에서 나는 그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매우 복잡한 것이며 성서 연구와 번역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 안에는 그것이 무슨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 암시되어 있다: 본문 안에 있는 담화가 다른 본문과 서로 관계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총책임자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를 맺음으로써 그 담화나 이야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본문의 과정.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을 때 이따금씩 유명한 구약성서 구절들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상호성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다. 인용 양식(“기록된 바”, “성경에 이른 대로” 등)을 통해서 독자나 청중들은 지금 저자가 다른 문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문학적 기법이 —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법들이 사용되려면 본문의 저자나 독자/청중이 모두(때로는 저자만이) 지금 읽히고 있는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는 그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약성서 본문이 연구된 이래로 신약 학자들은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이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본문상호성”이라는 용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자들은 이미 랍비 문헌이나 쿰란의 문서들이 무슨 의도로 인용되었는지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이 문서들을 깊이 연구했다. 그리고 다양한 해답들이 나오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신약성서에서 구약 본문을 인용한 목적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구약이 권위가 있는 문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사도적 말씀들과 선포들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일종의 입증 본문(proof text)으로서 구약이 인용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드(C. H. Dodd)는 구약성서를 인용한 목적이 단지 그 본문 자체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한다. 즉 구약성서를 이야기 안에서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인용구를 이야기 전체와 연결시키게 되고, 이로써 이 신약 문서 안에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상호성 때문에 그 옛날 실제 독자나 청중들은 인용된 구약의 원래 본문의 맥락에서 그 신약 문서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다드가 이러한 이론을 내놓자 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약의 독자들을 위해서 모든 구약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약의 문서와 구약이 서로 충분히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러한 인용구를 통해 해석되는 신약 본문이라는, 일종의 순환적 문제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런 문학적 상호 관련성을 처음 연구한 사람들은 “본문상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문학 연구를 통해 나온 용어이다. 이러한 연구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본문과 자신의 본문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의미라는 개념의 위치(이것이 저자에게 있는지, 독자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

면 이 둘 모두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이 의미해석, 궁극적으로 문학 세계에서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갖는 의사소통의 요소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2. 몇 가지 사례들

일단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했다면,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이 모든 차원의 의사소통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며, “본문”이라는 것이 — 만들어지고 있거나 입으로 말해지는 것, 그리고 저자라는 것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 단지 글로 기록된 본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해진다. 내 딸들은 종종 자기들이 봤던 유명한 영화의 — 물론 대부분이 코미디 영화이다 — 대사를 가지고 저녁 식사 대화에 끼어들곤 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우스운 이야기 장면(예를 들면 로빈 윌리엄스의 “미세스 다웃파이어”)에 빠지도록 하여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오가는 대화에서 비롯되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라일라, 내가 회초리 들게 하지마!” “유브 갓 메일(You’ve Got Mail)”이라는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하는 인물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거칠게 논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의 이메일을 받는 사람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영화 “대부”와 연결시키는데, 이것이 확대된 의미에서 본문상호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그는 상대방에게 비즈니스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이지 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침대로 가라”고 부추긴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그 여인에게 자신의 경쟁자를 유혹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이다. 여기에서 “침대로 가라”는 말은 영화 “대부”의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이 장면은 어느 패밀리 부하들이 한때 마피아의 도움으로 성공했던 할리우드 영화 감독의 집에 보내지는 장면인데, 이 부하들은 그 영화 감독이 다시 옛날처럼 그 패밀리의 손아귀에 들어와서 다시금 통제를 당하도록 만들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영화 감독은 자신이 아끼는 경주마 몇 마리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침대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연설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인물들은 종종 군중들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큰 권위와 감정적 파급 효과가 큰 본문을 언급한다. 마틴 루터 킹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종종 청중들에게 구약성서 이야기 모두를 다루면서 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성서에서 가리키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어주

는 그의 기술은 그가 단지 해석학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본문상호성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산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틴 루터는 청중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고 왔던 —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던 — 모세의 이야기를 연상시켜준 것이었다. 이 약속의 땅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의 예이다. 마틴 루터 킹의 경우, 그는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자기는 해낼 것이라고 예언자적으로 확신하는 새로운 모세로서 그 약속에 땅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본문상호성, 즉 이미 한 저자에 의해 만들어진 본문을 또 다른 의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지금 내놓은 몇 가지 사례들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언급된 본문의 배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 영화를 원어로 안 보고 한국어로 더빙된 것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본문상호성의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자신의 책 “푸코의 추”의 경우에서 본문상호성을 살리면서 번역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논한다. 이야기 한 부분에서 그는 어느 한 등장 인물이 이태리의 언덕들을 여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문득 이태리인 독자들은 문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산올타리 너머에”라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산올타리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에코는 이태리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시 구절을 던지시 말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에코는 자기가 암시하고자 하는 그 시 구절과의 본문 상호 연관성의 요지를 자신이 직접 설명해준다. 그러나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처럼 이런 친절한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그는 등장인물은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적 경험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독자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학적 상호 접촉이라는 것이 말하는 요지라고 말한다. 번역자는 이러한 생각의 연결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자는 단지 그 시구절의 원본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까지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태리인 독자가 아니라면 지금 에코가 연결 짓고자 하는 그 원래 본문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코는 극단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에코의 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 번역가는 이태리의 시구절 대신에 영국 시인 키츠를 암시하는 구절을 대신 삼입함으로써 원작에서 노렸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듯 문학 작품을 본문상호성이 있도록 번

역하는 것을 성서와 같은 신성한 글을 번역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질문은 아주 큰 주제를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번역에 영향을 주는 이 구분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간단히 제안하려고 한다. 수 세기를 거쳐 내려온 다양한 교회적 전통에서는 성서에 (구약의 기본 본문으로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옮겨가기 위해서, 혹은 신명기적 복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 혹은 불가타나 신 불가타역을 선호하기 위해서 허용된 몇 가지 변이를 포함해서)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가 그 이야기가 최초로 전해졌던 그 원래 이야기 구조나 순서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내가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말로 풀어내는(domesticate) 번역(일반 언어로 풀어쓰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 문자적인 것보다는 의미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나 낯설게(foreignize) 하는 번역의(문자적인 번역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말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단지 유대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야훼의 구속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기능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와 시대의 의미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심층적인”의미와 “표층적인” 구조가 그리 쉽게 (만일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들은 서로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본문의 상호성은 — 성서 본문의 저자가 다른 성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안에 연결시켰을 때 — 번역을 할 때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본문상호성의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성서 전승 안에 있는 본문상호성의 주제라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만일 당신이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면 히브리어 주석이나 히브리어 강독 수업의 강사들이 당신에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언어들과 매우 분명하게 연결되는 수많은 시편이나 예언서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포로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때 거듭해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이것이 바로 본문상호성이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본문 간의 상호 작용은 해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신념 위에 세워진 세계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도록 초청하는 성서는 권위적이고도 역동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성서는 일종의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다. 제2 성전기 유대교에서 특히 성서 낭독이 공동체 가운

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서 낭독은 일 년 혹은 삼 년 주기로 아주 세심한 계획에 따라 짜였던 것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 즉 자기들이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었는지를 거듭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서 낭독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서의 이야기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성서의 언어에도 푹 젖어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저자가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데에 — 즉 본문상호성 — 언어와 말의 “갈고리”를 얼마나 미묘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성서를 사용하는 것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와 동시에 유대교 안에는 주석의 방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랍비들의 몫이 되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주석 방법들에는 익숙하겠지만, 이러한 주석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반복되는 것과 성서의 어느 한 부분을 (혹은 성서 저자를) 다른 한 부분과 연결시켜주는 “갈고리” 역할을 하는 개념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쿰란 문서들, 특히 페샤림은 이 공동체가 과거의 예언을 오늘날의 것으로 느끼고 그것을 그 이야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석 행위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요점은 이러하다. 신약 시대에까지 이르는 히브리 문화에서 성서가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서 성서 문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서의 모든 잠재적 능력과 상관성이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달된 주석의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본문상호성의 문학적 요소들과 어떤 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에서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은(그리스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에 걸친 칠십인역) 히브리어 성서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본문상호적인 역할들을 — 특히 단어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던 미묘한 연결들을 — 모호하게 했거나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어 번역이 디아스포라에서 정경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전통 방식을 (본문상호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즉, 그는 편지를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과 더불어 교류를 했는데, 편지를 쓸 때 그는 드러내놓는 식으로(직접 인용), 혹은 은근히 말하는 방식으로(넌지시 암시하는 방식으로) 칠십인역을 사용했다.

3.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본문상호성의 사례

보통 신약성서에서 본문상호성을 말할 때는 신약에서 구약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종종 말하는데, 여기에서 나는 정경 안에서의 본문상호성 즉, 바울이 바울 자신의 글을 언급하는 사례를 다루려고 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일부러 단어를 바꾼 이유를 밝혀주는 구약의 구절을 언급한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모두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편지에서 — 디모데후서에서 — 가져온 것들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 연구를 위해서 저자의 문체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자신이 초기에 썼던 글을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옛날에 썼던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다.

3.1. 디모데후서 4:6(-8)과 빌립보서 2:12-18(1:23)

디모데후서 본문의 언어는 빌립보서 2:12-18을 반향하는(echoing)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절들은 그 주제에 있어서(희생으로서 바울의 고난) 서로 비교할 만하다. 또한 빌립보서 2:17은 “[관제와 같이] 붓는” 시각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유일한 다른 구절이기도 하다. 문법적인 의존성에 대한 이론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디모데후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과도한 목소리 톤은 바울을 존경했던 후대의 제자가 빌립보서의 본문을 거울삼아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가정한다.¹⁾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목소리 톤으로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것이 보다 맞는 생각이라고 본다. 이것은 특히 빌립보서 2:12-18과 같은 본문을 보면 맞는 의견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앞 부분에서 로마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1:7; 2:11),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향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연결점들을 찾아보자.

딤후 4:6

GNT Ἐγὼ γὰρ ἤδη σπένδομαι, καὶ ὁ καιρὸς τῆς ἀναλύσεώς μου ἐφέστηκεν.

NIV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NRSV As for me,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as a libation,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1) Dibelius and Conzelmann, p. 121; Brox, p. 265가 그러하다.

GNB As for me, the time has come for me to be sacrificed; the time is here for me to leave this life.

『새번역』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6은 바울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 이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바울의 죽음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이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있다.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이라는 문장은 종종 (곡식이나 동물) 희생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어지는 관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spendomai*라고 한다. 이 용어는 사실 희생제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 마치 바울의 피가(즉, 그의 생명) 부어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데서 비롯된 일종의 은유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바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희생제물로서 희생제(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²⁾ — 일반적으로 다른 희생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희생제 — 라는 맥락 가운데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그가 자신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희생의 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골 1:24).³⁾ 무엇보다도,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희생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spendomai*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신약의 유일한 다른 구절은 바울이 쓴 빌립보서 2:17이다.

빌 2:17

GNT 'Ἀλλὰ εἰ καὶ σπένδομαι ἐπὶ τῇ θυσίᾳ καὶ λειτουργίᾳ τῆς πίστεως ὑμῶν, χαίρω καὶ συγχαίρω πᾶσιν ὑμῖν·

NIV But even if I am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coming from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all of you.

NRSV But even if I am being poured out as a libation over the sacrifice and the offering of your faith, I am glad and rejoice with all of you...

2) 바울의 행동이 “자원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pace* Michel, *TDNT* 7, 536; Quinn-Wacker, 792); 도리어 순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 용어를 다시금 사용하고 있는 빌립보서 2:17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Marshall, 806을 보라).

GNB Perhaps my life's blood is to be poured out like an offering on the sacrifice that your faith offers to God.

『새번역』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구절과 앞서 살펴본 디모데후서 4:6(또한 4:6하반과 빌립보서 1:23을 보라; 4:8과 빌립보서 4:1에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한 것도 보라. 또한 이 두 편지 모두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라.)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둘 중에서 나중에 쓰인 본문이 앞서 저술된 본문을 의도적으로 반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디모데후서가 표면적으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글이라는 점과 또한 디모데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에 대해서 알았다(빌 1:1)는 점을 기억하라.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부어드리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각 본문에서 사용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즉, 빌립보서 2:17에서는 “일이 있을지라도”(설령 그러해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 반하여 디모데후서 4:6에서는 분명히 “나는 준비가 되었고”라고 말하고 있다(또한 빌립보서 3:12에서 “내가 이미... 했다는 것은 아니고”라고 말하는 것도 보라). 앞에서 바울이 만약으로 가정하던 일이 이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4:6하반에 반영된 이제 곧 “떠나간다”는 바울의 예감이 빌립보서 1:23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또한 이와 동시에 본문이 바뀌면서 불확실에서 이제 확실한 것으로 그것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할 때, 이 두 본문 사이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본문상호성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바울이 이와 같이 문학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때 그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다른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디모데후서에(빌립보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언어와 이미지가 갖는 주된 기능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 신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그가 쓴 이 편지들에서 각각 이루어내고 있다. 이전 상황에서 소망이나 헌신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언급되었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디모데와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그가 생각하던 것이 정말로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더욱 갖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본문상호성을 통해서 이전 배경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디모데와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그의 헌신과 소망을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굳세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이제 봉사의 큰 직분을 감당하려는 시

점에 놓인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가 계승하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보다 자세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 내가 결론적으로 관찰한 것은 번역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이 두 개의 본문이 서로 의도적으로 연결된 것이라면, 그것들을 번역할 때도 역시 이 두 개의 문장들이 서로 본문상호성이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번역의 사례들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장들을 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해야 오늘날 독자들이 이 혼하지 않은 신약성서의 단어 즉, *spendomai*가 관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연속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일 본문상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의미론적으로 최소한의 공통분모(즉, “희생, *sacrifice*”이라는 것)만을 나누어 갖는 것에 만족하는 번역에 안주함으로써 이 두 본문 사이의 연결을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 물론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낯설게 하는 번역 접근 방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빛는 제사라든지 관제라는 등의 개념은 오늘날 번역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낯선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언어는 익숙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 전략에서는 오늘날 서구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넓은 개념들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래 본문이 가져다 주는 충격이나 자극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본문상호성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언어적인 연결고리들이다(주로 *spendomai/analysis-analyo*).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번역 전략은 디모데후서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본문상호성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한다.

3.2. 디모데후서 1:7과 로마서 8:15

이 디모데후서 본문은 로마서 8:15에서 사용된 언어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이 로마서의 본문이 디모데를 교훈하는 데 적절한 것이라는 점은 질문의 여지도 없다(롬 16:21). 이제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면 지금 그 상황은 그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가르침이 다시금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두 개의 본문은 “영”에 대한 본문들이다. 본문을 다시금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의식적으로 이루어놓은 본문상호성의 증거가 나타난다.

딤후 1:7

GNT οὐ γὰρ ἔδωκεν ἡμῖν ὁ θεὸς πνεῦμα δειλίας ἀλλὰ δυνάμεως καὶ ἀγάπης καὶ σωφρονισμοῦ

NIV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TNIV ... Spirit...

NRSV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cowardice, but rather a spiri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GNB For the Spirit God has given us does not make us timid; instead his Spirit fills us with power, love and self control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8:15의 번역을 바로 대조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롬 8:15

GNT οὐ γὰρ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δουλείας πάλιν εἰς φόβον ἀλλὰ ἐλάβετε πνεῦμα υἰοθεσίας ἐν ᾧ κρᾶζομεν· ἀββα ὁ πατήρ.

NIV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TNIV ... Spirit ... Spirit

NRSV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of slavery to fall back in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a spirit of adoption. When we cry, “Abba! Father!”

『새번역』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위의 번역 대조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NIV와 NRSV가 “영”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간적인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디모데후서나 로마서 모두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서신들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TNIV는 NIV를 수정한 것이다. GNB는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경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1:6-14의 문맥은 머뭇거리고 있는 디모데를 훈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디모데는 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여행을

떠나야 하고,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가 자신으로부터 사역의 권한을 받을 준비를 시켜야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굳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 바로 바울이 성령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한 동역자요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서 종종 함께 일을 맡았던 사람(e.g., 고전 4:17)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회중 앞에서 그에게 사역을 위임한 것(딤후 4:14)을 언급하거나 그의 회심이나 입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의 사도적 위임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전의 편지들의 성격은 지금의 상황에도 들어맞는다. 이러한 경우, 디모데에게 일을 위임하는 — 바울이 그의 동역자에게 인수하여 사역을 맡기는 — 이 상황에서 그가 처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그 초창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일 것이다. 비록 완벽한 평행을 이루지는 않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여 권위를 부여한 전승과 (아래를 보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리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⁴⁾

디모데를 더욱 강하게 훈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실제로 뒤로 물러서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에 덧붙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디모데의 처음 믿음에 대해 언급한다. 그 이유(“왜냐하면”; *gar*)는 성령 신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절에서 사용된 언어는 로마서 8:15와 매우 유사하다:

롬 8: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딤후 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시다.

비록 이 두 개의 본문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의 디모데후서 본문 구절은 성령에 대해 가르친 로마서의 위 본문을 의식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만들어졌다(reshaping). 지금 사역의 상황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노예가 되는 것(*doublets*)에 대해 언급한 로마서의 표현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주저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비겁이라는(*deilias*)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바꾸는(reshaping) 작업”은 무엇인가 의도적인 것

4)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Wolter, *Paulustradition*, 218-22 를 보라.

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도적으로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 놓는 것은 동시에 또 다른 반향에 대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위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반향한다.

수 1:9 내가 너에게 군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deiliases*)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cf. 8:1)

여기에서 언어적인 반향(*verbal echo*)이 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다.⁵⁾ 하지만 어조(*tone*)라든지 내러티브 배경,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행동 등은 서로 무엇인가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다. 이러한 것이 주는 효과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일을 위임받는 여호수아의 이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약속을 자신의 편지에 끌어들임으로써 디모데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호해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고 있다.

결국, 로마서 8:15와 연결된다는 점과 지금 사용된 단어들 자체는⁶⁾ 바울의 논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⁷⁾ 첫째, 로마서에 반향되는 것은 이 가르침의 의도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가르침 — 이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 확증된다(롬 8:14-17) — 이다. 이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서 본문과 연결되는 점은 이전의 가르침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과 사역을 위임하여 넘겨준다는 주제로 새롭게 방향 전환시켜주고 있다.

첫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의 문제는 번역이 이러한 의도적인 본문상호성을 눈치 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TNIV는 성령에 대한 호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NIV와 NRSV와 같이 보다 문자적으로

5) 그러나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것을 “지키도록”(φυλάσσεισθαι) 지시를 받았는지(1:7),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선한 것을 “지키도록”(φύλαξον) 어떻게 부탁을 받았는지 (딤후 1:14) 보라. 주께서 결코 여호수아를 버리지(ἐγκαταλείψω) 않으신다는 약속과 디모데후서 4:10, 16에 나오는 “포기”(ἐγκαταλείπω)라는 단어의 사용을 참고하라.

6) 그리스어로는 *οἰδωμι*. “준다”라는 동사는 이 선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한 형태, 혹은 전형적인 방식이다(Luk 11:13; Act 5:32; 8:18; 15:8; Rom 5:5; 1 Cor 1:22; 5:5, etc.).

7) 현재의 문맥에서 6절에 나타나는 디모데에 대한 위임을 가리키는 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안수를 통해서나 받는 특별한 은사로 해석하였다. Brox, 229; Kelly, 159-60; Hasler, 57를 보라.

번역하는 것은 원래 본문에 있는 기본적인 리듬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GNB의 경우, 각각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확대하여 풀어쓰고 있기는 하지만 세 가지의 눈여겨 볼 만한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본문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의도가 독자들에게도 통해서 독자들이 본문의 상호성을 눈치 챘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첫째로, GNB에서는 주요 동사들을 서로 조화시키고 있다: “받는다”(롬 8:15) 보다는 “준다”(딤후 1:7)라는 동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디모데후서 1:7을 번역하면서 GNB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 8:15에서 거듭 언급된 성령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로마서 8:15에서 원래의 관계사절(“by [in] whom we cry out”)을 번역할 때 “성령의 힘으로/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짖는다(by the Spirit’s power we cry out)”라고 의미를 풀어서 확대하여 번역함으로써 GNB는 로마서에 “힘”이라는 개념을 더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1:7에서 언급된(“[성령의 능력]”) “능력”이라는 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와 우리가 첫 번째 예로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본문의 경우에서 이 둘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해주었던 GNB의 신학적으로 풀어쓰는 접근 방법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와 로마서 사이의 경우에는 도리어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질문과 선택들

위에서 살펴보았던 본문상호성에 대한 사례들은 가장 명백한 사례도 아니고 쉽게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이것들이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도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정의해보았던 본문상호성의 정의에 따라서 보았을 때, 위의 사례들에서 본문상호성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번역을 할 때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전부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연구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려고 한다.

첫째로, 만일 본문상호성이 성서 본문에서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본문들의 의미를 말할 때 본문상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을 할 때 그러한 본문 간의 상호 연관성이 예민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충분히 살려 내지 못한 번역이 될

것이다. 물론 번역을 할 때 원래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뉘앙스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분명하게 다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내가 지적했듯이, 칠십인역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 성서에 있는 히브리어의 말놀이(word play)를 상당량 삭제하였다. 이것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자신의 공동체와 동료들에게 이 성서를 가지고 말놀이를 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맛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성서를 권위 있는 기본 본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오늘날 번역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울이 읽었고 본문상호성을 적용했을 그 본문에 상응할 구약성서의 번역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 구약 번역에는 맛소라 본문이 사용되었지만 바울이 인용하고 가리키는 구약성서는 분명히 맛소라 본문이 아닌 칠십인역 구약성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힘든 문제이다.

이것에 대한, 적어도 신약성서의 그리스어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해결 방안 가운데 한 가지는 NTG²⁷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어떤 본문을 번역할 때에 단어나 구문에 있어서 유사성이 보이는 다른 본문을 난외주에 언급하여서 그 본문이 의도적으로 반향하거나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밝혀주는 것이다. NTG²⁷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분명히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용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적어도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번역을 한다고 해도 번역자가 본문상호성의 연결점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칠십인역을 사용한 신약성서와 맛소라 본문을 가지고 구약성서를 이용한 신약성서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학적인 말놀이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난외주 설명을 가지고 있는 스티디바이블은 NTG²⁷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디지털 문명은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요즘 성서 본문들은 모니터 화면에 드러나 있는 본문이나 초기화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여주는 하이퍼-텍스트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상태로 이미 전자화되어 준비되어 있다. 초기화 본문에 커서만 없으면 윈도우 상으로 그 본문과 연관된 다른 본문들이 뜬다. 이러한 특별한 방법들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러한 것을 이룰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쨌든, 내가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디모데후서의 본문이 그 본문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을 하면 그것을 읽는 독자는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된 본문상호성의 연결점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혹은 도리어 그것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 기본 본문이 크게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 정경 본문 내에서 이러한 작업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약을 넘어서 구약으로 가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칠십인역과 같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겹쳐지면 이 작업은 더욱 복잡해진다. “누군가는 읽겠지…”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은 성서 주석을 쓰는 학자들에게나 맡겨 두어도 될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성서의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나 아람어, 히브리어를 마스터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전어들을 매우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성서 본문에서 본문상호성을 분간해내고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전 세계의 교회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둘째,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옛날 유대교나 초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성서 본문과 매우 친숙해지도록 해주는 정도로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낭독하지 않는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어떻게 해서든 효과적으로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회들을 성서 이야기 안에서 지키는 몇 가지 방법들은 고안되고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기본 본문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며, 이러한 이야기들에 접근하는 통로는 다른 아닌 이차적인 번역을 통해서이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성서는 인정된 전승 안에서, 그 전승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칠십인역의 경우처럼. 그러나 본문상호성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는 번역의 몇 가지 고안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계속 읽혀지는 번역된 성서는 그 자체로서 자신만의 또 다른 본문상호성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번역이라는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원래 언어로 된 성서가 아닌 번역된 성서를 사용해 온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다. 어쨌든 본문상호성을 구분해 내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서 이야기를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결과로 생긴 부산물이다.

셋째, 대부분의 교회 전통에서는 (복음주의 계열에서 분명히) 단어나 언어 놀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미묘한 본문 상호 연결성을 찾아내는 해석학적 방법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문자적 방법, 한 개의 의미만 강조하는 방법들, 그리고 저자의 의도에 대한 엄격한 관점, 역사적-문법적 해석 등은 본문상호성을 잘 보여주는 미묘한 문학적인 연결점들을 찾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 상호적인 의도성이 있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며, 때때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점은, 어떠한 공동체나 교회 전승에서 말씀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이 때로는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예는 성서는 그 특성상 (그리고 성서에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특성상) 그 옛

날 사람들이 읽던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랍비들의 주석을 그저 환상적이거나 불가사이한 것이라고 그저 말해버린다는지 알레고리적인 주석을 단순히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적 발달과 연결해버린다면, 우리는 성서가 공동체 안에서 읽혀지고 적용될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았던 그 옛날 사람들의 깨달음을 공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상호성이라는 것이 성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본문의 한 가지 요소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성서 이야기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본문을 본문상호성이 있도록 번역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본문상호성을 살려 내기에 충분한가? 어쩌면 여기에서 몇 가지의 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문에 대해서 이러한 수준에 이르고 싶다면 그 공동체는 성서를 읽는 방법을 새롭게 고쳐야 하고, 듣고 해석하는 문화들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통용되고 있는 그 교회의 번역된 성서는 (읽히고 해석될 때에) 새롭고 역동적인 본문상호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본문상호성, 내러티브, 번역, 직역, 바울의 본문들

<Abstract>

Intertextuality: Lost (and Found) in Translation

Dr. Philip Towner

(United Bible Societies Director of Translation Services)

“Intertextuality”, the practice by an author or speaker of alluding to and engaging elements of already-existing texts or narratives, is clearly recognized as a feature of NT and OT texts. Observance of this literary-story feature reveals a potency that requires careful study. It enlarges a text’s capacity to express meaning and challenges the skills of the translator. Looking at what might better be termed “intra-textuality”(in the sense that the examples given show an interplay of “Pauline” texts), the question asked in the end is how intertextuality can be accounted for in translation.